

[한성 손재한 선생이 걸어온 길]

I. 愛國愛族과 百折不屈의 삶

1. 내고향 연백

나는 황해도 연백에서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습니다.(1922. 11. 19일생)

본관은 밀양이며 대대로 황해도 연백에서 살아왔으며, 태어난 곳은 연안읍 봉남리입니다.

어머님은 내가 4살 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아버님께서는 형님 되시는 백부님 한분이 계셨는데 만주로 가서 독립군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나에게는 19살 위 형과 누님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개성에 사시던 큰어머님께서 오셔서 나를 포함하여 조부님 그리고 아버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연백군은 연안읍 읍사무소가 관천리에 있었고 군청소재지는 연성리였습니다. 북쪽 비봉산(282m)아래 남향으로 시가지가 전개되었으며 읍내 남쪽에는 남대지라는 큰 저수지가 있었으며 당시 우리 집은 연안 읍내 봉남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연백보통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조부님은 한학을 공부하셨고 어릴 때 내게 천자문을 가르쳐 주셨기에 정자 식자 조부님의 함자를 한자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학교 다닐 때의 기억인데 당시 월사금을 납부하면 봉투 뒷면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거기에 손정식 조부의 함자가 한자로 적혀 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가을에 시제를 지내는 철이 돌아오면 조부님 손잡고 배천 또는 연안 온천으로 함께 두세번 간 기억이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제실도 있었으며, 많은 음식을 싸서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지금보면 그곳이 온정면 금성리였습니다.

1934년경 조부님 돌아가시자 나는 부친, 백모님과 함께 형 재덕이 자전거포를 크게 하던 천태리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용도보통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은 나와는 거의 스무살이나 차이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으며 소방대 활동도 하였고 사업도 잘하여 생활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연백군 용도면 면소재지는 천태리로서 산지는 거의 없고 기름진 평야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서쪽으로 연백군과 벽성군의 경계가 되는 화양천이 흐르고 중앙에는 천태천이 흘렀으며, 면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토해선 철도가 지나가며 천태역이 있었습니다.

해방후 내 고향 연백은 북쪽에 있는 연백평야의 젖줄인 구암저수지는 북쪽이 관리하고 그 이남으로 38°선이 지나기 때문에 남북간 물싸움도 심하였습니다.

2. 학창시절

마을에는 교육기관으로 유일하게 보통학교(소학교-->국민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용도국민학교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1925년(?)에 개교하여 나는 이 학교 10회(11회?) 졸업생이고, 1950년 4월에 26회 졸업생(쌍용회)을 배출한 것이 마지막 졸업생이었습니다.

용도보통학교 졸업 후 나는 해주 공립 고등보통학교로 진학하였습니다.

당시 개성 토성역에서 해주로 가는 토해선 철도가 있었으므로 나는 천태리에서 약 40여 분 걸리는 통학 기차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학교는 나중에 해주 동중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1938.4.1.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로 변경, 서울에서는 일본인 중학교와 조선인 고보가 똑같이 중학교로 통합되면서 일본인 중학교로 이미 경성중학교(서울고)가 있었기 때문에 경성이라는 이름을 잃게 된 경성고등보통학교는 경기중학교로 되다가 나중에 경기중, 경기고로 바뀜)

1922년 설립된 해주 고등보통학교는 1938. 4. 1. 해주동중학교로 변경되고 당시 일본인만 다니던 곳으로 해주 서중학교가 있었습니다. (입학자격 12세 이상, 처음에는 4년 나중에는 6년 연한으로 연장)

당시 일제의 창씨 개명 강제에 따라 나는 松岡 榮一 (마쓰오까 에이치)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백부님께서 집안의 가산을 모두 처분하여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을 쫓아 만주로 가신 후 가족 모두 매우 어렵게 살게 되어, 결국 해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습니다.

3. 강제징병과 소련군 포로생활

내 나이 약관에 대동아전쟁(1941.12.8. 진주만 기습으로 발발한 태평양전쟁)이 터지고 일본군 1기생으로 징병 되었고, 만주 하얼빈 관동군 15543부대에서 소련군과 대치하며 전쟁터를 전전하였습니다. 그 당시 갑자생은 무조건 전쟁터로 다 끌려간다는 소문이 많았습니다.(1922년 임술년(개띠), 1923년 계해년(돼지띠), 1924년 갑자년(쥐띠)이며, 기록상 조선인 징병제는 1943.8월 강행, 1944년 4월 첫 신체검사 후 17만 명이 입대하였음)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은 소만 국경을 넘어 진격하고 전투기 공격 등을 감행하였습니다.

일소 불가침조약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만주 땅이 탐나 전격적으로 진격하였고 결국 관동군은 소련에 항복하며, 무장해제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장해제 되었어도 바로 귀국하지 못하고 소련군 포로로 시베리아 하바로프스크로 끌려갔다가 블라디보스톡으로 그리고 목단강, 해림, 하얼빈 등지를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4. 험란한 귀국길(천우신조 귀향)

포로 생활 속에서도 다행히 미움을 받지 않아 소련 극동군 사령관의 여행증을 천신만고 끝에 발부 받을 수 있었고 단동에서 걸어서 압록강을 건너고 평안도를 지나 구사일생으로 38선을 넘어 고향으로 왔습니다. 귀향 전에 이시영 선생을 추종하신 백부님을 찾으려고 두만강 너머 동

간도 지방인 청산리 근처를 석 달 동안 찾아 다녔으나 끝내 흔적을 못 찾고 귀국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당시 귀국길에 중국의 인민해방군 소위로 채용되면 월급도 받는다고 하여 많이들 갔지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백부님이 만주로 간 이후 가난하였으며, 일제치하에서 견디며 살다 강제 징병으로 군에 끌려가 모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았고, 소련군에게 무장해제당하고 시베리아로 끌려갔어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으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부님을 찾기 위해 동간도 청산리 계곡을 헤매는 어려움속에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 왔습니다.

5. 해방정국의 청년운동

천신만고 끝에 귀향하니 국내 상황은 혼란스러웠고, 나라는 가난하였으며, 하루하루가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초대 국무총리 및 국방부장관을 겸임하던 철기 이범석 장군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 분이 이끌던 조선민족청년단에 가입하여 수원 중앙훈련소에서 단기교육을 받고 족청(조선민족청년단의 줄임말)의 일원이 되었고, 군대 경험 또한 있었기에 황해도 연백군에서 주도적인 책임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족청의 푸른색 제복과 수원 훈련소는 미군이 제공한 것이었으며, 미군정청이 예산을 지원하였고, 1948년 즈음에는 120만 명의 회원이라는 거대한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II. 企業報國의 삶

1. 6·25 한국전쟁과 피란민 신세, 그리고 厚生事業

1950년 6월 25일 새벽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전면적인 인민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미·소 합의에 따른 38°선으로 나뉘는 따라 연백과 옹진, 개성이 이남이었기에 나는 연백에서 조선민족청년단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38°선 이남의 당시 황해도는 육군 제1사단 보병사단의 위수 지역이었는데 사단장인 백선엽장군의 본대인 11연대는 인천주둔지에서 전방으로 나아가 수색에 주둔하였고 12연대는 개성을 지키고 있었으며 13연대는 파평산을 근거지로 주둔 중이었습니다.

당초 백선엽장군은 회고록에서도 말하였지만 38°선으로 길게 늘어진 남한지역이 옹진에서 파주까지 90km 정도로 길어 부득이하게 임진강을 방어선으로 생각하고 진지구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개전 6시간 만에 개성이 함락되고 제1사단 12연대는 개성에서 철수하여 임진강

철교를 건너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나는 우익으로서 조선민족청년단 활동의 연백군 책임자로서 용도면 송학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평소 교분이 깊던 연백에 살던 중국화교(아들은 호떡집, 아버지는 야채밭을 하는 주씨 성)의 사람 집 지하실에 숨어 한동안 신세를 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숨어살 수는 없었고 조선민족청년단 활동을 하던 나로서는 김일성의 공산당 치하에서 살수는 없었으며 인민군에게 잡히면 군대로 바로 끌려가거나 노무자 신세를 면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결심하였습니다. 아버님, 큰어머님, 형님, 누님 곁을 떠나 홀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정든 나의 고향 연백을 떠나 피란길에 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란 생활 끝에 나는 인천시 송림동에 정착하였습니다. 당시 인천 송림동은 구인천의 중심지인 동인천역에 가까운 변두리 언덕백이로써 많은 피란민이 판자촌을 형성하며 살기 시작하던 곳이었습니다.

전후의 대한민국은 '폐허'란 말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먹고 입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시절 나는 후생사업을 하였습니다. 당시 연천에 있던 15연대 소속 대대장이 나와는 잘 아는 지인 관계여서 덕분에 군의 후생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고. 도요타 군용트럭 1대와 특무상사 1명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미군 원조물자 중 비료를 구매하여 농민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은 가을 추수 때 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김포평야 일대에서 트럭으로 비료를 마을마다 운반하였습니다.

2. 나의 첫 회사 대륙사 경영

나는 1953. 10. 11. 평산 신씨 신례균과 혼인하였습니다. 황해도 평산군 양반집 자손으로서 차녀인 신부는 여러 명의 형제들이 함께 피란 나왔다가 나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는 인천에서 후생사업을 통해 조달한 트럭으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도움을 많이 주시던 1사단 인천지역 파견 대장의 주례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인 1954년 9월 6일(음) 장녀인 명진을 득녀하였습니다.

당시 나는 태광산업이 수입하는 원사를 도매로 대량 구매하여 이를 염색업자에게 되팔거나 옷감을 짜거나 또는 스웨터를 짜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첫 회사인 대륙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륙사라는 사명은 내가 만주별판의 하얼빈에서 너무 고생하면서 느낀 점이 많아 대륙사라고 지었습니다.

대륙사는 당시 성수동에 4천여 평의 공장을 지어 나일론사로 스웨터 등을 주력으로 제조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10년 정도 대륙사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자본을 축적하였습니다. 섬유산업에 종사하다 보니 주변에 원사를 필요로 하는 염색공장 사장이나 소규모 면직공장 사장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인천 송림동에 살다가 을지로 방산시장 인근 주교동 219번지로 이주하여 청계천 인근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사를 대량으로 도매하는 나의 재력을 보고 당시 강원도 사람

인 조태준이라는 염색공장 사장이 현 세운상가 부지의 미래를 예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당시 허름한 판자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부동산이 무슨 투자 가치가 있겠느냐는 생각에 무심하였으나 잦은 권유와 호기심에 조금씩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후에 세운상가 부지의 최대지주가 되었습니다.

3. 세운상가 건축과 개발사업

가. 세운상가 부지의 유래(소개공지)

제2차 세계 대전은 공중 무기의 발달로 인해 지상에 효과적인 피해를 주는 폭격기가 많았고, 이에 무차별적인 폭격에 대한 대비도 많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폭격에 사용되는 소이탄은 투하 시 2,000°C의 고열로 주변을 모두 태울 수 있기에, 화재에 취약한 목조 건물이 많았던 일본은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했고, 그 대비책이었던 경성부 내의 소개공지는 모두 19곳이 있었는데, 종묘 앞에서 필동까지의 너비 50m, 길이 1180m의 현 세운상가 지대가 대표적인 소개공지였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방치되어 있던 소개공지는 전쟁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과 월남한 이주민들이 판잣집을 지어 살기 시작하였고, 사창가까지 들어서 속칭 종삼(鐘三)이라고 불렀습니다.

나. 세운상가 준공과 운영

1966년 6월 20일. 그동안 여러 사업을 통해 나와 친분이 있었던 김현옥 전 서울시장은 당시 중구청의 6급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그것은 종묘 건너편에서 시작해 청계천로, 을지로, 퇴계로를 가로질러 형성된 종로~필동간 무허가 건물철거 후 민간자본의 첨단 건물 건축 계획안이었고 김현옥 시장은 이를 곧바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습니다.

1966년 7월 김현옥 서울시장이 불도저라는 별명답게 남한 최대의 유곽 지대인 종삼을 철거하기로 결정하면서, 세운상가 건축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건축가 김수근에게 설계를 의뢰하였고 나는 불량지구 속했던 종로3가 지역에 주주 48명 중 최대 토지주 자격으로 세운상가 건축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진행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 해 8월 말 무허가 건물을 자진 철거하면 상가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철거 후 이주시키겠다는 무허가 건물철거 전략으로 너비 50m, 길이 893m의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현대건설이 하였고 1967년 10월 대지 4933평, 연 면적 62,284평, 2000개가 넘는 점포, 호텔객실 177개, 주거용 아파트 851호로, 이 거대복합건물군은 1인당 국민소득 144달러에 불과하던 시절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복합건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4. 파고다 아케이드 건축과 공유수면 매립사업

가. 파고다 아케이드 건축과철거

이후엔 역시 불량지구엔 속했던 파고다 공원 주변을 정돈하자는 취지로 서편에 상가 '파고다 아케이드'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의 성지인 탑골공원을 둘러싸고 있던 것을 문제로 삼아 33인의 민족지도자인 이갑성 옹이 청와대에 호소함으로써 서울시와의 기부체납 계약기간을 다 채우기도 전에 허물어야 했던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나. 양평동 공유수면 매립사업

'광야개발주식회사'를 세운 후 같은 실향민 처지인 아산 정주영 선생과 함께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하면서 고생했던 기억도 납니다. 정주영 선생은 압구정동 일대를 매립하였고 나는 양화동 일대를 매립하였습니다. 양화대교가 있는 양천향교 아래는 그 시절엔 강바닥이었고 당시 매립면적이 2만5천여 평 규모였으나 정부가 수도용지로 묶는 탓에 소송이 벌어져 십 여년 이상의 법정 다툼 끝에 결국 평당 5만원 수준으로 정부에 수용되고 말았습니다.

5. 월드타워 빌딩 신축

잠실의 중심상권에 위치한 월드타워 빌딩은 나의 노력과 피땀으로 이룩한 60년 기업보국의 결실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훌륭한 건물을 짓겠다는 각오로 건축설계부터 매우 세심하게 접근하였고 설계비로 무려 30억 원이 들 정도로 여러 차례 바꾸고 변경하여 현재의 모습을 설계하였습니다.

1993년 당시 리비아 대수로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동아건설에 시공을 맡겨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지상 20층 지하 6층, 대지면적 933평 건축 연면적 11,087평의 월드타워빌딩은 건물 가운데 기둥이 없고,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1996년 2월 28일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5번지, 신주소 송파대로 558 잠실역 사거리에 최신 인텔리전트 빌딩 월드타워가 준공되었습니다.

현대식 파스텔 색조의 All Glass Curtain Wall과 장엄한 화강석의 조화로 뛰어난 외관을 보여주어 당시 건축 주요잡지에 이달의 명 건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Ⅲ. 효와 나눔의 삶

1. 유니세프 기부

나는 6·25 전쟁을 겪는 동안 김일성 공산당을 막기 위해 참전한 16개국 참전국에 대한 감사함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여 왔습니다.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잘 아는 나로서는 한국이 공산화 되는 것을 막은 16개국이 고맙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 기반이 잡힌 후 행동

으로 감사함을 실천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작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매달 정액의 유엔 세계아동복지기금을 후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니세프는 1950년 대한민국과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주한 유니세프 대표부를 설치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대대적인 긴급 구호 활동을 시작하였고, 1950년부터 1993년까지 유니세프가 한국에 지원한 금액은 23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1993년에 주한 유니세프 대표부가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설립됨으로써 한국은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던 수혜국에서 도움을 주는 공여국의 입장으로 탈바꿈하였고 주된 임무도 한국의 빈민 아동구호에서 개발도상국의 어린이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 유니세프에 50년 넘게 매월 정액의 기부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2. 에티오피아에 대한 보은

가. 에티오피아를 사랑하는 이유

내가 에티오피아를 사랑하게 된 것은 각뉴(KAGNEW)부대 때문입니다. 각뉴 부대는 6·25 전쟁이 끝날 때까지 6,037명이 참전하여 253전 253승이라는 전무후무한 전승 기록을 세우면서 6·25 전쟁 참전 UN군 중에서도 단 한 명의 포로도 없이 가장 용감하게 싸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크나큰 공을 세웠으며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각뉴 부대가 공산주의와 싸워 대한민국을 도왔듯이 에티오피아 국민들을 내가 도울 수 있기를 늘 희망하여 왔습니다.

나.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 보은성금 전달

2015년 4월 하순 나는 재단 관계자(나를 대신하는 손창수 고문, 김진성 수석 고문, 아예 멩지쉴 교수, 임기훈 부국장)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보내어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 멜레사 테세마 회장을 예방하게 하였고, 보은의 증표로써 미화 3,000불과 기념품을 전달하여 현재 생존해 있는 참전용사들에게 먼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다. 에티오피아 대학생 장학금 지원

두 번째 보은으로 에티오피아에서 대한민국 카이스트 학부로 유학 온 에티오피아 대학생에게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생인 이들은 성적도 매우 우수한 인재들로서 장차 에티오피아의 동량지재가 됨은 물론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간 우호협력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 에티오피아의 미래인 르네상스댐건설에 기부

Grand Ethiopian Renaissance Dam은 청나일강에 2011년부터 건설 중인 에티오피아의 중력댐으로써 수단 국경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에티오피아의 베니상굴구무즈 주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댐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에티오피아의 르네상스를 기원하는 6,450 MW의 어마어마한 댐으로써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수력 발전소가 될 예정입니다.

나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사활을 걸고 하는, 우리가 마치 경부고속도로를 처음 건설하는 것처럼 그들의 부강을 기원하면서 금액 기부를 하였습니다.

IV. 인재양성의 삶

IV-1. 장학사업

1. 재단설립과 재산출연

가. 장학재단 설립

월드타워 빌딩은 신축과 동시에 100% 임차 성공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나로서는 이제 새로운 인생II막을 시작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재양성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인재양성의 꿈을 장학재단 설립으로 실현하기로 하고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실제 설립인가까지 약 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실제로 2005년 맨 처음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 문턱은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만 개가 넘는 장학재단이 있다지만 한 해에 30억 원 이상 사업비 규모의 개인 장학재단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스스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장학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일부 재벌이나 몰지각한 사람들의 재산 숨기기 같은 행동쯤으로 오해하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한 때 송파구에서 세금을 두 번째로 많이 냈고 모든 것을 제3자인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겨 왔습니다. 공사 구분을 철칙으로 여기고 개인재산과 회사자산의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다시 장학회 설립을 재시도한 2013년, 문용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만난 것이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다섯 가지 인생철학이 있는데 애국애족의 삶, 백절불굴의 삶, 기업보국의 삶, 효와 나눔의 삶, 인재양성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 교육감에게 인재양성의 삶을 시작하겠다고 하니 자신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직원들 보내 설립준비를 조언하며, 많은 준비 끝에 설립인가를 받아 결국 바라고 바라던 장학회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좋은 인재를 추천할 학교장과, 장학생 선발을 위촉할 저명한 교수를 추천하였고, 첫 장학생을 선발하고 수여식을 하던 날 스스로 직접 오셔서 진심으로 장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나. 한성손재한장학회 설립 취지문

한성장학회의 설립취지문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협소한 국토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은 주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 오랫동안 고초를 겪어 왔다. 그러나 끈질긴 생명력과 불굴의 의지로 재기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 와 있다.

이제 우리가 국운 융성의 호기를 놓치지 않고 세계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선진국간의 치열한 첨단과학기술 선점 경쟁에서 앞서 나가 이겨야 한다. 나 손재한은 1950년부터 ① 대륙사 ② 세운상가주식회사 ③ 주식회사과고다아케이드 ④ 광야개발주식회사 ⑤ 주식회사월드타워 등 5개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60년 동안 기업보국의 길을 걸어왔으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에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하여 보답의 길을 모색하여 왔으며 국운 중흥의 길에 보탬이 되고자 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는 월드타워빌딩의 일출연채산의 임대료를 재단법인 한성손재한장학회를 설립하고자 한다. 이 재단은 출연재산의 임대료를 재원으로 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 갈 과학기술영재들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계속 배출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과학기술 발전공로상을 제정하여 과학도 등의 분발을 고무시키는 계기를 조성코자 한다. 한편으로 재단법인 한성손재한장학회는 세계 빈곤국의 아동교육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내가 40년 동안 유엔세계아동복지기금에 기부한 정신을 살려 지원코자 한다.

나는 이 재단에 남은 나의 재산도 추가로 출연할 것이며 많은 뜻있는 분들의 참여와 기부금도 출연되기를 기대한다.

서기2013년 4월 1일

재단법인 한성손재한장학회

출연자 손재한

다. 한성손재한장학회 설립과 개인재산의 무상출연

나는 먼저 20개 층인 월드타워 빌딩 중 10개 층을 장학재단에 무상 출연하였습니다. 감정가액 664억 2천만원이 신설 재단의 기본재산이 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재단설립비용으로 2억 원의 현금도 별도로 무상 출연하여 재단설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장학사업의 기본 방향

나는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력이 세계 일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향후 50년 동안 1만 과학자를 만들기 위해 매년 200명씩 될성부른 떡잎부터 발굴하여 나라의 동량지재로 키워 일만 과학자 군단을 만들어 놓으면 주변 4대 강국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또한 일 만 과학자 군단이 십만 과학자 군단이 되도록 나와 내 자손들이 대를 이어 계속하면 그것으로 내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 한성 노벨 영·수재 장학금과 장학생 선발

2013. 11. 22. 제1기(2014년) 한성 노벨 영·수재 장학생 선발공고 후 제1기 장학생 179명을 선

발하였으며, 매년 3월 18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고, 10기까지 약 1,799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IV-2. 시상사업

1. 과학상 제정의 뜻

나는 나의 5대 삶의 철학(애국애족, 백절불굴, 기업보국, 효와나눔, 인재양성)을 실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조속히 배출되기를 염원하여 2013년 장학회 설립 시에 한성손재한과학상(本賞)을 제정하였고 이는 물리학, 화학, 생리학, 경제학 4개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탄생하는 경우 노벨상금과 동일한 액수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수상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성손재한과학상(本賞)의 징검다리가 될 상으로 한성과학상(Hanseong Science Award)을 제정하여 장래가 유망한 젊은 과학자들을 매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조속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대한민국과 인류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추가로 제정하였습니다.

2. 한성과학상 시상개요

- 시상분야 :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 시상인원 : 각 부문별로 1인(공동수상 가능)
- 시상내용 : 상패 및 상금 5,000 만원
- 수상자격 :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 포함)으로서 현재 독창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며, 장래 발전 가능성이 큰 젊은 과학자

3. 한성과학상 수상자

가. 2018 한성과학상(Hanseong Science Award) 제1회 수상자

- 「물리학 부문」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박흥규 교수
- 「화학 부문」 광주과학기술원 화학과 이강택 교수
- 「생명과학 부문」 미국 듀크대 메디컬센터 이석용 교수

나. 2019 한성과학상(Hanseong Science Award) 제2회 수상자

- 「물리학 분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민범기 교수

- 「화학 분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 한순규 교수
- 「생명과학 분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이승재 교수

다. 2020 한성과학상(Hanseong Science Award) 제3회 수상자

- 「물리학 분야」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양범정 교수
- 「화학 분야」 서울대학교 화학생명공학부 박정원 교수
- 「생명과학 분야」 델포드 공과대학 주철민 교수

라. 2021 한성과학상(Hanseong Science Award) 제4회 수상자

- 「물리학 분야」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김근수 교수
- 「화학 분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화학공학과 정유성 교수
- 「생명과학 분야」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지성욱 교수

마. 2022 한성과학상(Hanseong Science Award) 제5회 수상자

- 「물리학 분야」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김준성 교수
- 「화학 분야」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조승환 교수
- 「생명과학 분야」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김성연 교수